



경순왕 영정

/ 국가문화유산포털(문화재청) /

1 개요

경순왕은 신라의 제56대이자 마지막 왕이다. 견훤(甄萱)에 의해 왕위에 올랐지만, 시종일관 반백제 친고려 입장을 취했다. 후삼국의 쟁탈전이 고려 쪽으로 기울자, 나라를 들어 왕건(王建)에게 바쳤다. 이로써 천년 신라의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2 경순왕의 가계

경순왕의 성은 김(金), 이름은 부(傅)이다. 시호는 경순(敬順)인데,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이름을 따서 김부대왕(金傅大王)이라 되어 있다. 제46대 문성왕(文聖王)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후에 신흥대왕(神興大王)으로 추봉된 김효종(金孝宗)이다. 어머니는 계아태후(桂娥太后)로, 제49대 헌강왕(憲康王)의 딸이다. 김효종과 계아태후의 혼인에 관해서는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이야기가 전한다. 효종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부잣집의 종이 된 효녀 지은(知恩)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그리하여 집안의 곡식으로 주인에게 보상을 해주고, 지은을 양인으로 만들어주었다. 효종의 낭도(郎徒)들도 곡식 한 섬씩을 내어 다 같이 지은을 도와주었다. 이 소식을 들은 정강왕(定康王)은 효종을 대견하게 여겨 형인 헌강왕의 딸을 아내로 삼게 했다고 한다. [관련사료](#)

왕비에 대해서 『삼국사기』에는 기록이 없으나, 『고려사(高麗史)』에는 죽방부인(竹房夫人)이라고 되어 있다. 경순왕은 고려에 항복한 후, 왕건의 장녀 낙랑공주(樂浪公主)와 혼인했고, 이어 아홉 번째 딸인 왕씨도 아내로 맞았다. 자식으로는 마의태자(麻衣太子)와 범공(梵空) 등이 있었다. 마의태자는 경순왕의 고려 귀부를 반대하다가, 금강산으로 들어가 삼베옷을 입고 풀을 먹다가 생애를 마쳤다. 막내아들은 화엄종 승려가 되어 법명을 범공이라 하였다. 후에 법수사(法水寺)와 해인사(海印寺)에 있었다고 한다. [관련사료](#) 또한 고려의 제5대 경종(景宗)의 왕비인 헌숙왕후(獻肅王后) 김씨도 경순왕과 낙랑공주의 소생일 가능성이 높다.

3 경순왕의 왕위계승

신라 사회의 분열과 혼란은 제51대 진성여왕(眞聖女王) 때부터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다. 889년(진성여왕 3) 상주에서 일어난 원종(元宗)과 애노(哀奴)의 난을 시작으로, 각지에서 지방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궁예(弓裔)와 견훤(甄萱)도 이 시기에는 여러 반란세력 중의 하나였으나, 900년(효공왕 4)과 901년에 각각 후백제(900)와 후고구려(901)를 건국하며 후삼국시대를 열기에 이르렀다. 이후 후백제와 후고구려는 관제를 정비하는 등 국가 체제를 갖추었고, 서서히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이 시기 신라는 제52대 효공왕(孝恭王)부터 제54대 경명왕(景明王)이 통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왕들은 견훤과 궁예의 침입에 대처하지 못했고, 후백제와 마진(摩震, 후고구려)이 나누지 지역을 놓고 쟁탈전을 벌일 때에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바라만 보고 있었다. 신라의 영향력이 미칠 수 없었던 것이다. 신라의 태도는 918년(경명왕 2), 궁예가 쫓겨나고 왕건이 왕으로 추대되면서 변화하였다. 920년(경명왕 4) 정월, 경명왕과 왕건이 서로 사람을 보내 우호를 맺음으로서, 일종의 동맹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신라와 고려의 연결은 견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같은 해 10월, 견훤은 대야성(大耶城)을 공격해 함락시켰다. 그러자 경명왕은 왕건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고려가 구원군을 보내자 견훤은 이를 듣고 돌아갔다.

경명왕에 이어 즉위한 경애왕(景哀王)은 친고려 정책을 더욱 강화했다. 924년(경애왕 1) 9월, 그